

벌도목이 넘어가며 작업자 흉부를 타격하여 사망

재 해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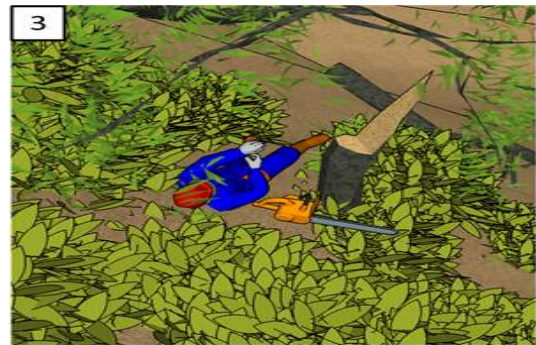
2018년 ○. ○. 경북 예천에서 벌목 근로자가 단독으로 기계톱을 사용하여 참나무를 자르던 중, 나무가 쪼개지면서 넘어지는 벌도목에 흉부 등을 맞아 사망

재 해 상 황 도

<쪼개지며 넘어가는 나무에 부딪침>



<수구 만들기 미실시>



재해발생원인

- 가슴높이 지름이 40cm 이상인 참나무 벌목작업 시 수구를 만들지 않고 벌목작업 실시
- 경사 약 52° 의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한 참나무를 벌목할 때 작업자가 대피하기 위한 대피로 및 대피장소 미확보

재해예방대책

- 올바른 나무 베기 방법 준수
 - 벌도작업을 하는 경우 벌도목의 수형, 인접목, 풍향, 풍속 등을 고려하여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 및 추구, 벌도매, 근주살을 만들어 작업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넘어 가도록 조치
-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보 준수
 - 벌도목이 넘어지는 방향을 결정하고 미리 벌도목 뒤편 좌·우 45°방향으로 작업자 대피방향과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확보